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4. 9.(월) 총 3매(본문2)
부처 합동	국토교통부	첨단자동차기 술과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창기 • ☎ (044) 201-3847, 3934
	경찰청	교통운영과	• 총경 홍석기, 경정 김용태 • ☎ (02) 3150-2053, 2751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9.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긴급차량 통행시간 45%대 단축·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도입 추진 표준규격 개발 착수...자율주행차 기반 구축 위해 지속 개발협력키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과 경찰청(청장 이철성)이 협력하여 현재 의왕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‘긴급차량·버스 우선신호 시스템’을 전국적으로 확대·도입하기 위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한다.

\*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개발 연구 용역  
 (기간/금액) 2018. 4.~12., 510백만 원

□ ‘긴급차량·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’은 구급차,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 또는 버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,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.

○ 화재·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,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로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\* 의왕시 5개소 시범운영 결과(‘17. 9. - ‘17.~12.), 긴급차량 통행시간 평균 45.6% 감소

-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를 위한 신호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통합 단말기 및 신호제어장치의 표준기술 규격안을 마련하여, 금년 8월경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기술 규격안을 배포할 계획이다.

\* H/W · S/W 시스템 구성, 통신 및 송수신정보 정의 등 아키텍처

- '긴급차량·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'은 향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으로,
  -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실시간 신호 정보 제공, 도로·교통 안전시설 표준화 등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기술과 김창기 사무관(☎ 044-201-39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왕시 시범사업 개요

- 대상지역 : 1번국도상의 5개 교차로(모락로사거리↔고천사거리) 1.8km
- 운영방식 : 긴급차량과 신호제어기간 통신장비를 설치, 긴급차량이 교차로 통신영역(100m)에 진입했을때 기존신호 중단하고 긴급차량의 진행방향에 직/좌 동시신호 부여
- 시범효과 :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시 긴급차량 통행시간 약 20~60% 감소



<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성도>

- 현장장비 설치사진

